

울산시, 수소 인프라 1000억 투자 유치... “친환경 도시 도약”

롯데SK에너지, 발전소 신설 계약 내년 착공... 年 16만MWh 전력 생산 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적 지원



울산시는 지난 5일 울산시청에서 롯데에스케이(SK)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좌측부터 세번째 심영선 롯데SK에너지 공동대표, 김용학 롯데SK에너지 공동대표, 김두겸 울산광역시 시장, 안효대 울산광역시 부시장) /롯데SK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인 롯데에스케이(SK)에너지가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울산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수소에너지 전주기 가치사슬을 더욱 공고히 해 수소 산업 분야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울산시와 롯데에스케이(SK)에너지는 지난 5일 시청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롯데에스케이(SK)에너지 김용학·심영선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한 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롯데에스케이(SK)에너지는 울

산·미포국가산단 내 1만 5431㎡ 부지에 1000억 원을 투자해 탄소 배출 없이 전력 생산이 가능한 1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2기를 내년 1월 착공해 연말까지 준공한다. 연간 전력 생산량은 16만MWh으로 이는 울산시의 약 4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신설 투자와 발전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 울산 시민을 최우선으로 고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 밖에 발전소 신설 과정에서 구축되는 수소 전용 기반(인프라) 시설이 울산 지역 내 수소 충전소 신설 등 수소에너지 확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울산시

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울산시도 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롯데에스케이(SK)에너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롯데에스케이(SK)에너지 김용학·심영선 공동대표는 한 목소리로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울산시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신설은 대규모 수소 수요를 창출해 관련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울산의 수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수소는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울산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며 “수소 관련 기업을 많이 유치해 울산이 세계적인 수소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에스케이(SK)에너지는 롯데케미칼(45%)과 에스케이(SK)가스(45%), 에어리퀴드코리아(10%)가 부생 수소 기반 발전사업과 수송용 수소 사업을 위해 2022년 9월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지난해 상반기 일반수소발전 사업자로 선정됐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다양해지는 수시 전략... 예체능도 실기 없이 교과·논술 지원

영상분야 등 관련 활동 없이도 진학 능력최저학력 반영 여부 살펴봐야

대학 예체능 분야는 대부분 해당 분야에 특기가 있는 학생이 실기를 통해 진학하지만, 실기를 치르지 않고도 예체능 분야에 수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뒤늦게 예체능 분야로 진로를 정해 미처 실기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관련 활동이 없는 수험생이 노려볼 만하다.

◆ '논술'로 영화·영상 계열 도전

7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영화나 영상 분야로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교과 전형이나 논술전형으로 도전해 볼 수 있다.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는 교과전형과 논술전형으로 각각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능 최저조건이 있는 교과성적 우수자와 달리, 학교장추천전형과 논술

〈체육 계열 2025학년도 교과 및 논술 전형 수도권 일부 대학〉 /진학사

대학명	모집단위	전형명	전형방법	수능 최저
가천대	운동재활학과	교과	학생부우수자 교과 100	반영
		지역균형	1단계 : 교과 100 (7 배수) 2단계 : 교과 50, 면접 50	미반영
		논술	논술 100	반영
경기대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교과	지역균형 교과·비교과 70, 교과종합평가 30	반영
		논술	논술우수자 논술 100	반영
	골초산업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교과	지역균형 교과 비교과 70, 교과종합평가 30	반영

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화 관련 전공이라면, 명지대 교과전형과 한양대 논술전형을 눈여겨볼 수 있다. 두 전형 모두 수능점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명지대의 경우 2단계 전

형으로 면접까지 치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양대 논술전형에서는 학생부가 10%가 반영되지만 내신 성적이 아닌 출결, 봉사활동 등을 참고해 학생의 학교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평가한다.

◆ 미술·디자인 계열에 교과성적만으로 입학 가능

미술·디자인 관련 활동이 부족할 경우, 교과성적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교과전형을 고려할 수 있다. 가천대, 경기대, 경희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여대, 인천대, 인하대, 한성대, 홍익대 등의 대학이 미술·디자인 관련 일부 모집단위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결과와 함께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을 고려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교과성적이 다소 부족한 학생이라면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을 고려할 수 있다. 가천대 패션산업학과, 동덕여대 큐레이터학전공, 상명대 애니메이션전공, 홍익대 예술학과는 논술전형으로도 신입생을 선발한다. 논술반영비율이 높

기 때문에 교과성적이 부족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지만,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 체육 분야는 운동 잘하는 학생만?... '아니다'

체육분야중 스포츠산업이나 스포츠의학 등은 운동을 월등히 잘 하지 않더라도 도전할 만하다. 특히 체육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의학에 관심을 가졌던 학생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천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에서 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모두 수능최저 조건이 있어 이를 충족해야 한다.

우원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실기나 관련 활동이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예체능 학과라고 해서 경쟁률이 낮거나 합격선이 낮은 것은 아니며, 전년도 입시결과를 토대로 본인의 교과성적이거나 논술 실력 등이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ihj@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100만장 판매

서울시는 지난 1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가 시행된 지 70일만인 지난 5일 누적 판매 100만장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5일 오후 4시 기준 누적 판매량은 100만8000여장으로 ▲모바일 카드는 49만3000장 ▲실물 카드는 51만5000장이 각각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30일 사용 만료 후 재충전된 카드를 모두 포함한 누적 개념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세요”

12일까지 현장접수 실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교육급여 만 14세 이상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 중 지난해인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자이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 1회 카드포인트(바우처)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2023학년도 기준인 초등학교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교 65만4000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급여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현장접수 장소는 서울시교육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으로 12일까지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해돋이 / 06:07
해질녘 / 19:01

오늘의 날씨

4월 8일 (월)

음력 : 2월 30일

수도권 날씨

11 ~ 2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6/24

동두천 8/25

가평 6/25

파주 6/23

서울 11/24

양평 8/24

용인 11/23

수원 11/23

인천 10/20

백령도 8/15

평택 8/8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이스라엘 인질 시신 수습 송환...반정부 시위는 계속 /사진 뉴시스
▲ 이란, 이스라엘에 보복 또 언급...“반드시 이뤄질 것”

▲ 트럼프 “이스라엘, PR전에서 패배했다” 신속한 종전 촉구
▲ 러시아 남부 오르스크 댐 2차 붕괴...“4400채 침수”



▲ 푸틴, 카자흐 국경 홍수 지역에 비상사태부 장관 급파
▲ 엘런, 中 리창 만나 “직접적·공개적 소통해야 진전” /사진 뉴시스